

지역 매 아리

노후화 우량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완주군이 노후화된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경쟁력을 꾀하고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달 실증시험 연구기능 강화와 미래농업 기술보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새롭게 보수, 교체하고 본격적인 우량묘 생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첨단경량온실(2,106㎡)과 유리온실(800㎡) 및 조직배양실 등의 노후화된 일부시설과 필름을 교체하고, 관배수시스템 등을 정비해 우량종묘 안정생산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완주군은 우량종묘 확대보급을 위해 해마다 농가들의 수요가 높은 무병 딸기묘(5만주), 씨감자(10톤), 주야마늘(30만구), 고구마, 생강 등 5품목에 대한 고품질 우량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관내연구회 및 거점농가 등 지역 선도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모악회, 7월 월례회의

김제시 기관·단체장 모임인 모악회(회장 박준배)가 지난 27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중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월례회의에서 모악회장인 박준배 김제시장은 "기관·단체장님들과 함께 청렴달사(淸廉達事)의 마음으로 낙후와 침체 위기에 빠진 김제시를 경제도약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기관·단체장 여러분과 시민 모두 손에 손잡고 소통과 화합으로 '김제발전당'으로 하나 되어 힘을 보태 주시라"며 앞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와 당부를 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중앙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난 26일 각종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통한 고충민원의 이해 및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군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줄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권익구제 및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임선주 전문위원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고충민원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분석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종자박람회 포스터 확정

질그릇에 여러 씨앗 담기는 모습 형상화 10월 23일부터 4일간 민간육종연구단지서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의 공식 포스터가 확정됐다.

이번 국제종자박람회 공식 포스터는 박람회 엠블럼을 모티브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메인 포스터로 선정하였고, 질그릇에 여러 가지 씨앗이 담기는 모습을 형상화한 젊은 디자인을 서브 포스터로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표현했다.

김제시는 27일 개최되는 모악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에 공식 포스

터 부착을 요청하고, 김제시민 모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의 홍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시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벽골제야

리랑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공식 포스터를 부착하여,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국제종자박람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는 작년에 행사를 치른 경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종자기업들의 품종을 전시하는 제1전시포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하는 식량작물로 구성되는 제2전시포,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기능성 소재 및 허귀 유전자원을 볼 수 있는 제3전시포를 운영함으로써 바이어 및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개회를 통해 2021년 2억불 종자수출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시가 종자생명산업의 메카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노력 '결실'

김제여성새일센터, 취업률 크게 향상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이러한 새일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540여 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특히 지난 6월 수료식을 마친 직업교육훈련생 59명중 4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맞춤형 식육마이스터 과정의 경우 교육생 20명 전원이 취업하여 성공적인 교육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업체 관계자 간담회, 현장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박람회,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체 현장견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일센터 직원들은 "낯선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알선에 이르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기업체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을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지문화 확산 손 맞잡다

완주 대승한지마을, 서해대학과 산학협력키로

완주 대승한지마을 한옥전통문화체험관(관장 이명기)과 서해대학(총장 서동석)이 한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대승한지마을 한옥전통문화체험관은 서해대학과 지난 26일 대승한지마을에서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산학연계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실무 경험 및 취업 기회 제공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각 기관의 기자재 및 시설물 공동 이용에 협력 △한지문화

분야에 대한 세미나, 설명회 등의 공동 개최 등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도 공유한다.

한편 완주 대승한지마을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고려지(紙)의 원산지로서 전통한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지체험관, 한지생활사전시관과 승지관, دو양산업조합과 즐방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한옥체험관에서 한지문화를 한



계 체험하는 1박2일의 프로그램 등이 있어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1,200만원을 받았다.

새정부 들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혁신평가는 혁신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민 주도적 참여와 공공이익, 공동체 발전 요소를 지표에 반영하여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측정한 혁신과제 실질체감도가 반영된 평가결과 김제시는 기초자치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제시는 정부혁신 평가계획에 발맞춰 정부정책에 부응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기반구축, 선도과제 발굴 육성 등 선제적인 활동성과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민참여 플랫폼 조성, 맞춤형

형 서비스 혁신, 스마트한 행정 구현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4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열린정책 혁신콘테스트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선도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했다.

특히 집수리, 청소, 보일러 점검 등 독거노인 생활민원 처리 및 세대 방문 봉사를 실시하는 '희망드림 움직이는 복지공동체'와 우체국, 우유보급소, 한국전력공사 등과 복지 협업시스템을 가동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 매일 안심서비스'는 본 평가에서 우수과제로 뽑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박준배 김제시장, 경로당 현장방문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365일 시민 중심의 시장구현을 위해 시민소통·현장행정 추진을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매주 토요일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8일 봉남면 구호경로당을 시작으로 경로당 10개소를 찾아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였으며 민선7기 시장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애로·건의사항에 일일이 메모하며 성실한 답변을 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허례허

식을 지양하는 박 시장은 이 날에도 사랑방식 간담회 형식으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통해 주민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경로당 현장방문은 시민참여 소통·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민선7기 역점시책사업으로, 시장이 관내 경로당(622개소)을 매주 토요일 순회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신뢰를 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지난 27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활

동 중 발굴한 한부모 가정 A군(14세) 등 3명을 선정하여 대상 청소년이 범죄 등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요인 즉, 비행위험성 등에 대한 사례 분석 후 심리 상담 등 사안에 적합한 해결 방안 모색 및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